



절편녹용 내년 4월 1일부터 문호개방

- 생녹용 아닌 건녹용으로 제한, 본회 정부에 지원대책마련 촉구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12일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중 개정안을 확정, 의약품 각 조 녹용 다음에 '녹용절편'을 신설하고 이를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따라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생산되어 현지에서 절편된 건녹용이 자유롭게 국내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본회는 식약청의 고시에 즉각 반발하는 한편 성명서를 발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회는 성명서를 통해 절편녹용의 수입은 △국내외산 녹용 가격차를 심화시키고 △뉴질랜드산 녹용의 시장영향력을 확대시켜 독주체제를 가져오게 되며 △가짜·저질품 혼입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저하와 녹용시장 축소 현상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양륙산업 특별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본회는 양륙산업 특별지원대책 내용으로 △ 국산녹용 생산기반 조성 및 품질차별화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녹용 안정 판매기반 확충을 위한 수매기구 설치 및 규격품화 사업 지원 등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각 해당부서에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본회 김수근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농림부 김영진 장관과 직접 만나 전달했다.

김회장은 농림부 장관에게 "절편녹용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지만 국내 농가들은 스스로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 당당히 맞서겠다는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며 대신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김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산녹용 안정 판매기반 조성을 위해 축발기금에서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지원 자금을 요구했다.

한편 일부지역에서는 내년 4월 1일부터 절편 생녹용이 자유로이 수입돼 마켓 등에서 판매된다는 거짓 소문이 돌고 있어 양륙인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본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절편녹용이 수입되더라도 이는 건녹용에만 국한된 것으로 생녹용이 절편 수입되는 것이 아니며 수입된 건녹용도 한의약업소 외에는 판매될 수 없다"고 못박고 "일부 지역의 허황된 거짓 소문에 회원들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양륙인들**